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욱 · 새생각회 회장

쓸수록 좋아지는 머리

어떤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임종에 이르러 숨을 거둘 몇 초 동안에, 그 인생의 엄청난 사건과, 경험을 모두 생각해 낸다고 한다. 인간은 원래 정신능력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가 구름처럼 일고, 샘처럼 팔팔 솟아나는 것은 놀랍다. 그러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상식의 제약을 깨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를 하나 풀기로 하자. 여기에 붉은 벽돌 하나가 있다. 이것의 용도를 5분 동안에 될수록 많이 내어 보자. 5 이하밖에 생각못했다면 당신의 머리는 분명히 녹슬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서둘러 분해검사할 일이다. 5~10이라면 겨우 겨우이고, 10~15는 보통이며, 15이상은 우수하다고 하겠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비결이 있다. 붉은 벽돌 하나만 하더라도, '붉은 벽돌 하나, 붉은 벽돌 하나,...' 하며 주문처럼 외운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내려면 먼저 붉은 벽돌 하나의 특징인 속성을 적어 볼 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과 같은 속성이 나오리라. 하나의 붉은 벽돌은 단단하다, 무겁다, 입방체, 붉다, 으깨면 가루가 된다. 여기까지 오면 다음은 간단하다. 그 속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문제가 좁혀지기 때문이다.

(단단하다)는 속성에서

호도 까기에 쓴다, 망치로 쓴다, 태권도의 연습용, 싸울 때 흉기, 해충을 때려 죽인다, 숫들의 대용품, 굵은 못 바로 잡을 때 밀받침, 모난 대를 연장 대신에.

(무겁다)는 속성에서

저울의 추, 절일 때 누름돌, 포환던지기, 연습용, 태풍 때 찢어진 지붕누르기, 책보의 네 귀를 누른다.

(입방체)의 속성을 살리면

차의 정지용, 자의 대용, 벽의 구멍이나 쥐구멍 마개, 조각의 소재, 장식 표지, 종이상자 만들 때의 틀, 입방체를 전본으로 하는 수학교육의 교재.

(붉다)는 속성을 살리면

위험신호, 벽돌색의 색 변분, 연지나 입술연지의 원료, 섬유 물감으로, 인주의 원료, 화단돌래의 장식용.

(가루가 된다)는 속성에서

가루를 무희에 몸에 바른다, 가루를 풀에 섞어

서 공작용 찰흙으로, 가루를 모래에 섞어 화분흙의 장식용, 가루를 치분으로 쓴다(동남 아시아). 이렇게 무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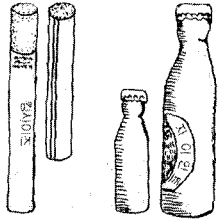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자기 능력을 개발하자.
 한 신문 한 장의 용도도 생각해 보자.



더 크게, 더 길게도 발명

맥주회사에서 생맥주를 다루게 됐다.

생맥주는 보통맥주보다 알콜분이 희박해서 많이 마시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지금보다 훨씬 큰 병에 담아 자이안트(거인)라고 이름붙여 팔았다.



부부 한 쌍과 한 사람 더한 손님이라면, 한 병의 마개를 따는 불편이 없어져서 대호평이었다.

담배의 킹사이즈인 팔말도, '훨씬 더 길게 했으면?' 하는 목표에 맞춘 것이다.

'종래 담배보다 20% 더 긴 것이 신사들의 마음에 들어 매상을 늘였다.

K할아버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 '담배를 긴 담뱃대로 피우니 맛이 좋아서 파이프의 연기구멍을 길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 끝에, 파이프 안쪽에 나선형의 홈을 낸 실용신안이 한때 반짝 유행하여 큰 돈을 벌었다.

더욱 더 높게 한다면?하고 생각한 발코니는

무선전신을 발명하고 있을 때, 50m쯤 떨어지니까 아무리 해도 잘 수신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테나를 높이 올리니까 수신이 됐다. 그래서 '더욱더 높인다면 대서양 횡단교신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1901년 연에 안테나를 달아 100m나 높이 올려서 드디어 미국과 영국 사이의 무선전신에 성공했다.

미국의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사는 말보르라는 담배를 팔았다. 품질은 좋은데도 원일인지 매상이 부진하여 큰 조사기관에 부탁하여 '소비자는 어떤 담배를 좋아하는가?' 하고 조사한 결과,

- 1) 대중은 담배라면 항상 청결을 연상한다니 그러면 흰색을 바탕색으로 해야겠다.
 - 2) 흡연심리로 조금 긴 담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킹사이즈로 길게 하기로 한다.
 - 3) 포장은 긴 것을 강조할 수 있게 의장해야 한다.
 - 4) 최근 담배종이에 독성이 많으므로, 대중은 필터를 바라고 있다.
 - 5) 품질이 좋음을 나타내게, 고귀한 느낌을 주게 한 가운데에 금색 문양을 넣기로 한다.
- 는 조사에 따라 만든 이 담배는, 한해 동안에 종래매상의 50배나 올랐다.



음식이 발명을 돕는다

발명가는 튼튼한 몸을 가져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음식물에 조심해야 한다. 발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머리를 충분히 활동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

미원, 두부, 달걀의 노른자, 우유, 버터, 과일, 채소, 치즈, 빵, 김, 콩, 생선, 고기 등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편식 비단 영양면에서 뿐 아니라 신경질적이고 편협해지기 쉽다.

음식은 잘 씹어 먹어야 한다. 몸이 항상 피로해 있거나, 병으로 앓고 있다면 생각하는 일은 무리다.

‘잘 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기’는 옛부터 내려 오는 말이다.

장래 발명가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해야할 것은 발명의 어려움을 이겨나 가는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에디슨도 건강에 매우 관심을 가졌었다.

에디슨은 대성한 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요즘 사람들은 과식하고 있다. 지금의 식사량을 삼분의 일로 줄이고 영양 있는 것을 먹어라.”

에디슨이 발명왕이라는 뒤에는 이처럼 몸의 건강에도 항상 조심하였으며, 철저한 금주, 금연가여서 술과 담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그의 연구실의 연구원까지도 술, 담배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병원행보다 식단개선을 하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이상이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이전에 먼저 평소의 식단을 꼼꼼히 점검해 볼 일이다.

날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중, 어느 하나라도 공급이 달릴 경우에 ‘최적한 건강’을 바랄 수 없게 된다.

한 보기로, 도시락 형태의 개선이 시급하며, 밥 80%와 마찬 20% 비율의 현재 도시락은 불필요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하게 되고, 밥을 먹기 위해 짠 반찬을 넣게 되어, 영양 섭취는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다.

밥과 찬의 고정관념을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쌀밥을 꼭꼭 눌러 담고, 쇠고기 장조림이나 각종 조림무침, 찐지류를 반찬으로 넣어주는 것이 이제까지 도시락에 대한 상식이었다. 이런 도시락은 영양이 무시된 성의없는 반찬이므로, 주부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도시락과 찬그릇을 50:50의 크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신외무물이라 했다. 몸보다 더 신중한 것이 없고, 건강을 앞서는 것이 있는가. **발특 9604**

「자기상표 수출확대를 통한 기업세계화 전략」설명회

- 일 시 : 96. 5. 29(수) 14:00 ~ 18:00
- 장 소 : 무역센터 12층 대회의실
- 신청 및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품개발부
전화 : 551-4334, 4336
전송 : 551-4335, 4342